

“마을 오염 부르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안돼”

광양 황방·고길마을 110가구 주민 협의없이 설치 강행 불만 수질오염 우려 등 결사 반대 3주째 허가 철회 촉구 집회

광양시 황금동 황방마을과 고길마을 110여 가구 주민들이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양시가 지난달 13일 주민 동의도 없이 마을 인근에 건설 폐기물처리장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시청 앞에서 입주 반대와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18일째 강행중이다.

마을 주민들은 “7년 전 마을 인근에 레미콘 회사도 입주 당시 침사지를 설치하니 환경 오염에 안전하다고 했지만 마을로 이어지는 하천이 레미콘 침출수 등으로 오염돼 우렁가 현상으로 다가온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면 각종 폐콘크리트 등을 분쇄하며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마을 공간이 식수원과 하천이 오염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폐 콘크리트와 폐자재 등을 운반하는 대형 트랙터들의 운행이 잦아 교통사고 및 비산 먼지로 인한 친환경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황금동 황방마을과 고길마을 주민들이 지난 18일 광양시청앞에서 마을 인근에 들어설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주민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한 업체에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들은 건축허가 승인 철회 외에는 향후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집회를 강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양기홍 대책위원장은 “해당업체가 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었다”면서 “그러나 시는 법적 행정절차상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입장은 현재 마을을 살리는 길은 건축허가 취소 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농성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 배연호 환경과장은 “지난 1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관련 부서와 6개월간 협의해 부지 사용승인,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쳤다”면서 “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를 줄이고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광양시는 향후 영업허가인 폐기물처리 시설업 허가가 남아있어 시설기준에 맞도록 철저히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 황금동에 들어설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지상 1층 부지 1939.89㎡에 지상 1층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기된 폐 콘크리트와 폐 블록, 폐 벽돌 등을 골재 분쇄기로 분쇄한 후 철근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재활용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배영재기자 byj@

‘빛그린매실’ 주총 정관 변경 가공·유통센터 건립 탄력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대표 서인호)의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빛그린매실(주)는 지난 19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15년 빛그린매실사업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의 안건은 정관변경,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사선정 등이었다.

빛그린매실(주)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변경으로 20억원 규모로 출자가 가능한 사업장이 됐고, 신주 또한 7만8522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양시가 5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연직 이사 3명과 선출직 이사 13명 등 16명의 이사를 확정했다.

서인호 대표이사는 “주주총회가 성공리에 개최됨에 따라 빛그린매실사업단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내년에는 광양매실의 소비촉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 테러 대비 훈련

광양시와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지난 19일 금호동 (주)SNNC에서 ‘2015년 을지연습’ 테러 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광양소방서와 광양경찰서, 한국전력 광양지사, KT광양지사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가했다.

<광양시 제공>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2017년 건립

68억 투입 에너지절약형 건물 내년 1월 착공

오는 2017년 광양시 중마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중마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된다.

광양시는 사업비 68억 9600만원을 들여 현 동사무소 후면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193㎡(지하주차장 면적제외) 규모의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다.

육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갖춘 친환경적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건립되는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1월에 착공해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에는 다기능사무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 3층과 4층에는 요가, 스포츠댄스실, 체육단련실, 대화의실, 취미교실, 정보화교육장 등이 설치된다.



앞으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가 계획대로 신축되면 중마동 주민(2015년 7월 말 기준 1만9353세대 5만4507명)들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한결 편해지고, 그동안 부족한 문화와 복지공간이 확대돼 주민 ‘살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주차장 논란 지연’ 중마 23호 일반광장 정비사업 착공

광양시는 주차장 조성 찬반 논란<광주일보 2015년 6월 19일 11면>으로 지연됐던 중마 23호 일반광장 정비사업을 최근 착공했다.

광양시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5220㎡의 광장에 ▲바닥분수 144㎡ ▲주차장 896㎡(62면) ▲의자 24개 ▲잔디광장 1031㎡ ▲네티나무 48주 ▲공원 조형 18개소 ▲조형파고라 3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조도높은 조명 설치와 네티나무를 식재해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하고, 친수공간인 바닥분수를 설치해 여름철에 아이들에게 물놀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조성된 중마 23호 일반광장은 현재 시설이 낙후돼 도심 경관을 저



해하고, 야간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양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안된 보도설치와 차로연결 등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목성리 성황·개성마을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광양시가 ‘현지 개량방식’으로 광양읍 목성리 성황·개성마을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현지 개량방식’은 시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불량주택 등을 신축·개량하는 방식이다.

광양시는 총사업비 82억원을 들여 성황마을에 도로 3개노선 708m, 소공원 2개소 352㎡, 주차장 2개소 477㎡를 설치하고, 개성마을에는 도로 5개노선 985m, 소공원 1개소 50㎡, 주차장 1개소 385㎡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성황·개성마

을 대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으나 일부 골목길에 협소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구역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21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광양읍 성황·개성마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설명회 후에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전남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2015 영호남 문화대축전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2015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로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양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일시 2015년 9월 18일(금) ~ 20일(일) 3일간
장소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홍보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행정홍보 및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010-5156-5596

주최 | 광주일보사 每日新聞社